



●● 침터의 장

생활의 지혜 _ 3대 7의 대화법칙

고사성어 _ 여망비웅[呂望非熊]

한권의책 _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영화 이야기 _ ① 천상의 소녀 ② 뮌헨

연극 공연 _ 늙은 부부 이야기

바둑 묘수 풀이 _ 白의 무리한 수를 응징하는 수는

등산 안내 _ 소백산

골프 안내 _ 스윙의 기본 ③



생활의 지혜

3대 7의 대화법칙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죽 나열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결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없으며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것보다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더욱 호소력 있고 진실에 가깝다.

조선왕조실록 성종편에 보면 평해 손씨의 이야기가 나온다.

세종 9년(1427년) 손밀의 아들인 손순효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6,7세에 이미 학문에 능했다고 하며 단종 1년 문과에 2등으로 급제하고 복시에도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도승지를 거쳐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을 때 성종이 중궁 윤씨를 폐위하자 상소를 올려 극구 반대하기로 했으며, 자신을 총애하던 성종이 죽자 주야로 통곡하며 먹으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리학을 깊이 탐구했고, 문장과 글씨에 상당히 능했으며 청렴 결백하기로도 이름이 높았다.

연산군 5년 나이 70세에 사퇴의 뜻을 표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다가 다음해에 병사하고 만다. 현재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천등산에 그의 산소가 있다.

시문에 능하고 대나무 그림을 즐겨 그렸다는 손순효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선비인데다 청렴결백한 인물로 술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 외에는 흠잡을 곳이 없는 멋쟁이었다.

어찌나 술을 좋아했는지 왕이 조회를 가질 때부터 얼굴이 벌겍게 달궈진 채로 나타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으로부터 갑자기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급보를 받은 성종은 외교문서 분야를 맡고 있던 손순효를 급히 찾았다.

그런데 급한 전갈을 받고 달려온 손순효의 얼굴은 그야말로 가관이였다. 평상시에는 그다지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던 성종도 그 날만큼은 벌겍게 달아오른 손순효의 얼굴을 보고 불현듯 화가 치

밀어 올라 벌컥 화를 냈다.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겼거늘, 술에 취해 도무지 일을 시킬 수가 없구나.”

성종은 혀를 끝끝 차며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불러오라고 일렀다. 그 소리에 손순효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아뢰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운데 어찌 다른 사람을 시키시옵니까?”

성종은 내심 이번 기회에 그의 술버릇을 고쳐놓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대로 손순효에게 일을 맡겨버렸다. 손순효는 술에 취해 벌겍게 달아오른 얼굴로 급하게 글을 써서 중국으로 보냈다.

며칠 후, 중국으로부터 답신이 왔는데 거기에는 “대체 누가 이런 글을 썼느냐”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질타의 글인가 싶어 계속해서 읽어보니 이어진 글에는 “한 자 한 자 흐트러짐 없는 명필에 완벽한 문장까지 누가 이토록 기막힌 글을 썼느냐”는 칭찬의 말이 담겨 있었다.

그러한 답신을 받은 성종은 완벽한 문장을 구사한 손순효의 노고를 치하하며 작은 은잔을 하사하면서 그것으로 하루에 술을 석잔만 마시라고 명을 내렸다.

성종의 하사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손순효는 하사품을 바라보며 답답하기만 한 가슴을 쓸어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임금의 명을 어길 수도 없는 일이라 그 작은 잔으로 석 잔을 훌쩍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날을 보내기에 이른다.

다음 날 손순효는 멀쩡한 얼굴로 조회에 나타났고, 그것을 본

성중은 무척 흡족해하며 좋아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손순효는 조금도 술기운이 없는 얼굴로 나타났는데, 셋째 날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는 예전처럼 다시 얼굴이 벌겍게 달아올라 조화에 나타났던 것이다.

당시에는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복을 베는 극형에 처해지는 것이 법이었다. 그리하여 술버릇 하나 다스리지 못해 가까운 사람 잃게 되었다고 주변의 다른 대신들은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감히 임금의 명을 어기다니…….”

또 다시 벌겍게 달아오른 손순효의 얼굴을 보고 몹시 노한 성중이 그를 불러 앉힌 후 그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손순효는 당당하게 목숨을 내건 스피치를 풀어놓았다.

“전하가 주신 술잔으로 석 잔만 마셨을 뿐입니다.”

“뭐라, 석 잔만 마셨다고?”

“전하께서 내리신 은잔의 두께가 두꺼운 것 같기에 은장이를 불러다가 좀 두드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대야처럼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것으로 석 잔을 마시려니 어찌나 힘이 들던지……. 두 잔만 마셔도 벌겍게 달아올라 지경이었는데, 전하의 명대로 석 잔을 채워 마시니 이렇게 심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명 은의 무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치 있는 손순효의 대답에 어이가 없어진 성중은 그저 웃음으로 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의 총명함에 노기가 수그러든 것은 물론이고 이후 그를 더욱 총애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재치 있는 말도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의 배려와 성품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말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손순효는

성중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재치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성중이 손순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그 자리에서 법을 집행하라고 명령했다면 아까운 인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수도 있다. 성중은 포용력이 있었기에 손순효의 재치 있는 말이 먹혀들었던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말 공세가 이어지는 것은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진심으로 들어주는 상대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간결한 말을 건네면서 상대방의 적절한 맞장구를 받는다면 대화에 있어서 한치의 오해나 불신이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맞장구란 빈정거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자세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1/3법칙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1/3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고, 1/3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며, 나머지 1/3은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비율을 말한다. 즉, 내가 하는 말은 3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7은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죽 나열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결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없으며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것보다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더욱 호소력 있고 진실에 가깝다.

[이현정의 「성공하는 스피치, 돈버는 스피치」 中에서]



고사성어

여망비웅[呂望非熊]

곰보다 큰 사냥감 태공망은 문왕의 아들인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가 천하를 잡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다.

일찍부터 이루어진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는 우리 정신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한 중국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다. 오늘날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식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사나 속어, 명언 중에서 가장 함축성 있고 풍자적인 주옥같은 명구들을 소개한다.

주나라의 문왕이 사냥을 가려고 할 때, 점치는 일을 담당하는 태사 벼슬의 편이라는 사람이 거북이 등뼈를 불태워서 갈라지는 것을 보고 점괘를 풀어내었다.

“임금께서 위수의 북쪽에서 사냥을 한다면 커다란 사냥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무기도 아니고, 기린도 아니며, 호랑이도 아니고, 큰곰도 아닙니다. 점에 나타난 징조로는 제상이나 제후와 같은 고위직에도 오를 정도의 큰 인물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께서 임금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위대한 인물을 왕께 내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임금을 보좌하여 삼대가 지난 다음에까지 나라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왕이 “점이 이처럼 좋은 징조를 나타낸다 말인가?” 라고 묻자, 태사 편이 대답했다.

“저의 선조인 태사 주가 순임금을 위해서 점을 쳤을 때 고요라는 현인을 얻었는데, 그때의 점괘가 이 점과 비슷합니다.”

문왕은 그래서 삼일간 목욕재계하고 위수의 북쪽에서 사냥을 했다. 과연 점괘대로 띠풀 위에 앉아서 빈 낚시를 드리우고 있는 여상을 만나게 되었다.

문왕은 마차에서 내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여러 가지를 묻고 답

하면서 큰 위인임을 알았다. 문왕은 그를 마차에 태우고 돌아와 높이 받들어 태공망이라 부르며 스승으로서 삼고 국정을 도모했다.

후한시대 최인이 <달지>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태공망은 어부의 몸으로 자신이 쓰여야 할 조짐을 틈 거북이 점에 드러내어 문왕이 등용하도록 한 것인 듯하다.”

그리고 그 주에 이렇게 적혀 있다.

“서백이 사냥을 하려고 점을 쳤는데, 사냥하여 얻은 것은 용도 이무기도, 큰곰도 아니다. 얻은 것은 천하를 힘으로 지배하는데 힘이 될 참모일 것이다.

대개 옛 책에서 말하는 <비웅>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삼국지의 제갈량과 병서인 <육도>로 유명한 태공망의 이야기다.



옛날에는 나라의 큰일을 모두 점을 쳐서 결정했다. 전쟁이나 제사뿐만 아니라 사냥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했는데, 그 부산물이 주역이다.

태공망은 자신을 불러들인 문왕의 아들인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가 천하를 잡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태공망 같은 인물들

을 만났을 때 문왕의 태도이다. 몸소 자신을 낮추고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를 다했으며, 그러한 예우는 자기 사람이 된 뒤에도 죽을 때까지 아니 그 다음 대를 맡길 때까지 이어졌다.

사람을 부린다는 것, 사람에게 부림을 당한다는 것을 최고로 승화시킨 예이다.

[이한의 「지혜를 두드리는 인생의 아홉 가지 문 봉구」 중에서]



한권의 책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시골의사의 두 번째 책인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 죽도록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아가며>이 출간되었다. 이 책 역시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의 네이버 블로그 인생이라는 코너에 연재하는 에세이들을 모은 것이다.

나와 가깝고도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번 책에 수록된 27편의 희로애락은 하나같이 뛰어난 단편소설에 필적한다.

때로는 길고 짧게, 때로는 강하고 약하게 어우러지는 음률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애잔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 반성과 생명에 대한 성찰로 우리에게 “죽도록 사람답게 사는 법은 무엇인가?”라는 진정한 삶의 의미도 던지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언뜻 속편은 전편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책에서 지은이는 전편에서 볼 수 없었던 <자기 삶 안쪽>에 대한 문을 스스럼없이 활짝 열어 두고 있다. 전편이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소중한

친구들과 선후배 등 의사라는 삶을 선택하면서 알게 된 소중한 인연들의 희로애락을 직접 한 가닥 한 가닥 풀어냄으로서, 전편과 다른 이야기로 방향의 가닥을 잡았다.

“나는 앞의 책에서 한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이 이야기들을 묶으면서 쏟아냈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느껴지는 사무침 같은 것이 줄곧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지은이의 말처럼, 지은이 자신의 삶과 소중한 인연들을 타인이 아닌 나의 입장이 되어 풀어낸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진정 사랑하는가?”

지은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퍼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은 사랑



이다. 지은이는 사랑이 어떠한 형태와 색을 띠든 그 존재 가치의 필요의 유무를 떠나 날것 그대로를 생생하게 그리고자 했다. 그저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무치도록 아름다운 우리네 삶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친구 부인의 넋을 기리는 49제에서 시신이 바뀐 것을 알고 모두가 넋이 나갔던 이야기(서러운 한은 내게 두고 가오), 너무나 사랑했지만 가난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사랑과 이별의 과정만으로도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친구가 결국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야기(사랑아, 사랑아, 두려웠던 내 사랑아 1, 2), 남편의 죽음을 시작으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며 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이장댁 이야기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지은이가 “이 책에 실린

에피소드들은 내 감정과 주관적 느낌이 많이 녹아 있어서, 책으로 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대로 묶어내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책을 통해 불행하게 일찍 생을 마감해야 했던 내 친구와 또 기억해둬야 할 몇몇 사람들에 대한 나의 예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될 치부처럼 여겨져도 말이다.

하지만 이야기 곳곳에 숨어 있다 때때로 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마음 한켠이 뜨끔해지는 건 여전히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우리네 죄책감 때문은 아닐까 싶다. 그러한 면에서 분명 이 책은 속편을 애 타게 기다려온 독자에게 또 다른 빛깔과 색다른 향기로 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저자 : 박경철 / 출판사 : 리더스북]



영화 이야기

천상의 소녀



탈레반 정권 붕괴 후 만들어진 최초의 아프가니스탄 영화

〈천상의 소녀〉는 아프간 재건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만들어진 이 영화의 촬영 조건은 영화 속 소녀의 운명처럼 가혹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은 법적으로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법을 개정하라는 아프간 여인들의 시위와 혹독한 가난으로 절망에 휩싸인 마음.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나가죽었고 가족이라고는 할머니와 어머니뿐인 열두 살 소녀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 이르고, 남장을 하게 된다.

식료 집화상에서 소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게 된 오사

마, 어느 날 마을에 모든 소년들이 탈레반 군대 교련을 위한 학교에 소집되고 소년으로 위장한 오사마 역시 학교로 데려가져 훈련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동료 소년들에게 여자로 의심받게 된다. 그때 소녀를 좋아하는 소년이 외친다.

“그 앤 남자야. 그 애 이름은 오사마야!”

같이 훈련을 받던 아이들과 싸우고 벌을 받던 중, 소녀는 교관에게 여자인 것을 듣게 된다.

“이 아이는 여자다!”

이 말 한마디에 소녀의 운명은 건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빠져드는데…….



영화 이야기

민헨

1972년 뮌헨 올림픽, 11명의 이스라엘 선수들이 살해당했다.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1972년 뮌헨 올림픽. 모두가 열광하는 가운데 끔찍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이 팔레스타인 테러 집단 <검은 9월단>에 의해 인질로 붙잡혀 살해당한 것. 전세계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고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복을 결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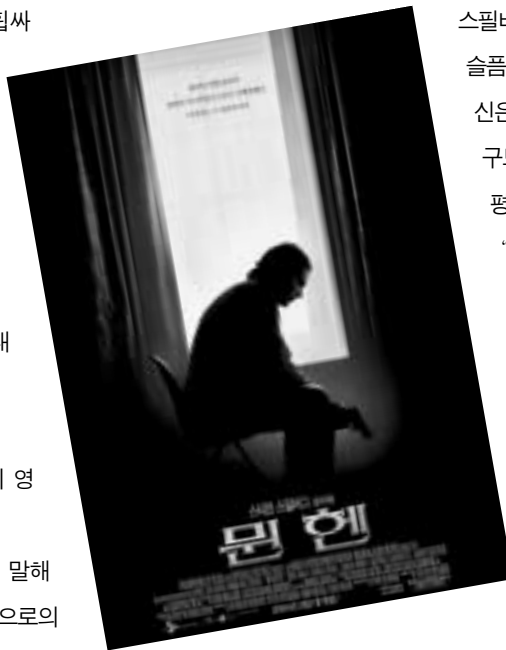
이스라엘 정부는 최고의 비밀 정보 요원들을 소집, <모사드>라는 전문 테러 집단을 구성해 복수를 명령한다. 테러 사건에 가담한 팔레스타인은 모두 11명, <모사드>는 이들을 한 명씩 찾아내 치밀한 복수를 시작한다.

미국 개봉시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이 영화에 대해 깊은 호감을 나타내었다.

보스톤 글로브의 타이 버는 “간단히 말해서, 이 영화는 스피버그 감독의 진지함으로 회귀이며, 근래 만들어진 그의 최고 작품”이라고 평했고, USA 투데이의 마이크 클라크는 “스마트하고 때로는 긴장감 넘치는 이 작품의 절대 가치는 현재로서는 완전히 헤아릴 수 없다”고 치켜세웠으며, 뉴욕 타임즈의 마놀라 다지스는 “자신들의 혈통에 혼란스러워하는 두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시선을 담은 이 영화는 분명 스피버그 감독의 커리어 중 가장 터프한 동시에 가장 고뇌에 찬 작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시카고 선타임즈의 로저 이버트는 별 넷 만점에 만점을 부여하며 “스릴러로서의 <뮌헨>은 효과적이고, 강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고, 윤리적 논쟁의 관점에서 이 영화는 뇌리를 떠나지 않을 작품”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으며, 아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의 엘레노어 링겔 길레스피는 “이 영화에서 스피버그 감독은 대단한 솜씨와 그보다 더 큰 슬픔을 가지고 질문들을 던진다. 하지만 그 자신은 대답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마 그 누구도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호평을 보냈으며, 토론토 스타의 피터 하웰은 “자신의 예술세계와 영혼을 접목시키는 한 남자(스피버그 감독)의 인상적인 업적물”이라고 칭했다.



평론가들의 찬사는 이어졌는데, 뉴욕 포스트의 루 루메닉은 “이 영화가 보여준 용기는 오스카상을 통해 보답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롤링 스톤의 피터 트래버스는 “이 영화는 스피버그 감독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고, 그는 이어

필버그 감독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고, 그는 이어



정을 명예롭게 마무리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달라스 모닝 뉴스의 크리스 보그너는 “〈원헨〉은 양심을 가진 액션영화이다. 스피버그 감독의 걸작은 다른 대부분 감독들의 최고작품을 여전히 능가하고 있다”고 그의 연출력에 박수를 보냈다.



연극공연

늙은 부부이야기

첫사랑보다 아름다운 마지막 사랑

박동만 할아버지는 거처할 곳을 찾다 생활 광고지를 보고 이점순 할머니 집을 찾아온다.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보며 할머니와 옥신각신 흥정을 해 이사를 결정하게 된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동거로 인해 각자 외롭게 살던 이점순 할머니와 박동만 할아버지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의지해 가며 살아가던 중 이점순 할머니는 불치병을 얻게 되는데...

■ 청춘보다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한다

인생의 황혼 무렵, 그들에게 찾아온 사랑은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른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을 하느냐고.

낭만이나 설레임에 대한 기억이 어렵듯이 존재하기나 하냐고

그렇게 우리는 치부해 버릴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을 테마로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첫사랑 보다 더 따뜻하고 살기 쉬운 이들 부부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 더 애뜻하고 더 소중한고 더 아름답다. 젊은 연인들처럼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그 네들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랑이야기. 그것은 청춘보다 아름다운 무엇(?)이 있다.



■ 닦고 싶은 사랑, 그 안에 이 부부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외로움의 꼭대기에서 새로운 노년의 인생을 발견한 두 노인, 서로 의지할 것이 없던 두 노인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인다. 마치 고운 한지로 맛을 낸 노부부의 신혼방처럼 아기자기한 그들의 사랑이야기가 어릴 적 기억 한편에 존재할 법한 정겨운 한옥집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그 속에는 마치 우리의 부모님과도 같은 정겨운 모습과 먼 미래에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부부의 모습,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이자 우리 이야기이다.

■ 최고의 배우들이 인정한 이 부부의 매력

2003년 각종 시상식에 오르내리며 술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늙은 부부이야기, 거기엔 손종학 김담희 커플이라는 보석 같은 배우들을 발굴한 위성신 연출의 안목이 있었다.

가장 뛰어난 배우의 연극을 표방하는 늙은 부부이야기는 이듬해인 2004년 <축제가 거는 수작(秀作) 두울> 이라는 타이틀로 국립극단 간판배우인 오영수와 이혜경 커플을 내세워 더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 전과는 또 다른 느낌의 늙은 부부 이야기를 완성시켰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은 위성신 연출은 새로운 박동만과 이점순 캐릭터의 연구를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배우들이 만들어 가는 <늙은 부부이야기>를 기획하였으며, 그 첫 번째 주자로 브라운관으로 더욱 친숙한 이순재가 캐스팅 되었다.

이후 성우로도 널리 알려졌으며 2004년 <발칙한 미망인>이란 모노드라마를 통해 관객들에게 친숙해진 성병숙씨의 가세와 <88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및 <89 영화 연극상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배우 이호성, 최근 2005년 <제41회 동아연극상 여자연기상(바다와 양산)>을 수상한 예수정 등 연극계 최고의 연기파 배우들이 선택 할 만큼, 배우라면 누구나 욕심 낼 만한 매력 있는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순재, 이호성 그들만의 색깔이 묻어 나는 캐릭터 박동만, 이 시대 최고의 아버지상을 제시하는 국민배우 이순재, 하지만 차림새부터 건들거리며 동작 하나 하나가 영락없는 날라리 영감이자 동두천의 제일 가는 바람둥이 신사 박동만을 텔런트 이순재가 연기한다.

반면 흰칠한 키와 외모에서부터 뿔어져 나오는 끼를 주체할 수 없는 개구쟁이 신사 이호성, 굵직한 그의 음성으로 토해내는 느끼하고 걸죽하기까지 한 박동만의 대사가 벌써부터 관객들에게 어느 팀의 공연을 관람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성병숙, 예수정 친구에서 라이벌로 만난다. 터프한 욕쟁이 할머니에서 부드러운 여인의 모습을 표현해야 하는 캐릭터 이점순.

다양한 심리 변화를 표현해야 하는 이 역할에 성병숙, 예수정이 나란히 캐스팅 됐다. 둘은 고려대학교 극예술연구회 동기로서 십년을 함께 한 친구이자 라이벌이다.

굉장히 학구적이며 지금과 똑 같은 모습이었다며 배우 예수정의 대학시절 모습을 회상하는 성병숙, 정말 따뜻하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을 타고났다고 배우 성병숙을 칭찬하는 예수정. 서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각각의 개성으로 탄생시킬 욕쟁이 할머니 이점순 여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다려진다.



∴ 공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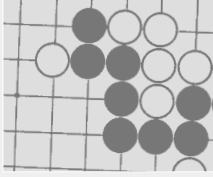
△공연기간 : 현재 공연중 ~ 2006년 2월 5일

△공연시간 : 화·수 8시 / 목·금 4시, 8시 / 토 4시, 8시(월 쉼)
단, 설 연휴 1/28(토) 7시, 1/29(일) 3시, 6시 공연 없음
*1/30(월) 3시 공연 있음

△공연장소 : 소극장 축제

△제작 : 극단 오늘 /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문의 : 02-741-3934 www.galaplann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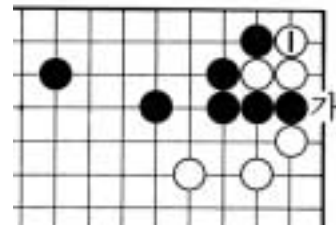
바둑묘수 풀이

白의 무리한 수를 응징하는 수는 (넘는 수와 사는 수를 동시에 견제)

바둑은 전략이다. 바둑은 두뇌싸움이다. 두뇌를 쓰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욕심 하나로 전장에 뛰어드는 병사는 하루살이 꼴을 면치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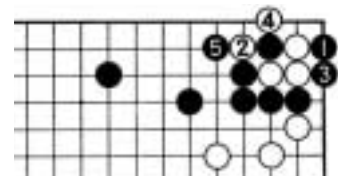
[문제]

흑선. 白이 가로 건너가지 않고 1로 꼬부러 선수로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 이것은 무리한 수인데 응징하는 수를 찾아보자(첫수가 묘수이다. 이것을 모르면 白의 무리를 통하게 하는 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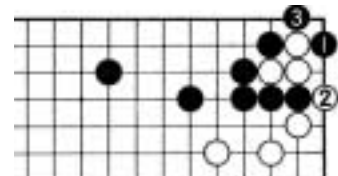
[정답도]

흑1의 白을 찢러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는 동시에 귀에서 白의 사는 수를 차단하는 묘수이다. 白2로 흑 한 점을 잡으면 흑3, 5로 두면 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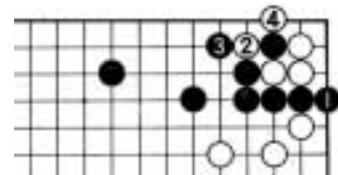
[1도]

흑1에 白2로 건너는 것은 흑3으로 연단수에 걸려든다. 따라서 白2는 쓸데없는 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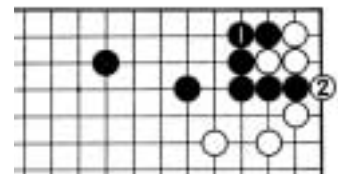
[실패도]

자칫하면 흑1로 두기 쉽다. 그렇게 되면 白은 2, 4로 훌륭히 살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참고도]

흑1에 잇는 수는 맥을 모르는 데서 빚어지는 후퇴이다.





등산 안내

장쾌한 설원과 설화의 겨울산의 대명사 **소백산**

눈꽃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겨울산행이 눈이 내리면 활기를 띤다. 설원의 장쾌함과 눈꽃을 함께 볼 수 있는 겨울산행은 등산의 백미로 불린다. 탁 트인 시야에 묵은 체증 내릴 듯 겨울산은 황홀하며 색다른 낭만과 스릴을 제공한다.

겨울철이면 하얀 눈을 머리에 이어 소백산(小白山)이라고 불리는 소백산(1,439m)은 봄철이면 광활한 능선은 온통 기화요초가 만발하며 국망봉, 비로봉, 연화봉, 도솔봉 등 많은 영봉들을 거느리고 있다.

죽계구곡과 연화봉에서 이어진 희방계곡, 북으로 흐르는 계곡들은 단양팔경의 절경이 되며, 계곡의 암벽사이에는 희방폭포를 비롯한 많은 폭포가 있다.

5~6월이면 철쭉군락, 여름에는 초원, 가을의 단풍, 겨울 눈꽃의 환상적인 자태 등 사계가 아름답다.

소백산의 장관은 비로봉 서북쪽 1백m기슭의 주목군락(천연기념물 244호), 5~6m에 몇 아름씩 되는 1만여 평에 2백~6백년 수령의 주목 수천 그루가 자생하며 한국산 에델바이스인 솜다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소백산은 천년고찰을 자락에 품고 있는 한국불교의 성지이기도 하다. 국망봉 아래 초암사, 비로봉 아래 비로사, 연화봉 아래 희방사, 산 동쪽의 부석사, 그중 구인사는 천태종의 본산으로 1945년에 개창되었으며, 높이 33m에 이르는 5층의 대법당을 비롯 연건평 3,000평이 넘는 대규모의 사찰이다.

소백산에 진달래가 시들면 4월말부터 철쭉과 원추리 에델바이

스 등이 잇달아 피어난다. 그래서 소백산은 봄이면 꽃이 피지 않는 날이 거의 없어 "천상의 화원"에 비유된다.

소백산은 초원과 철쭉, 주목군락과 철쭉이 어우러진 철쭉명산이다. 정상 비로봉에서 동북쪽의 국망봉, 구인사 못 미쳐 신선봉, 연화봉 등 능선을 따라 철쭉이 무리를 지어 피어있다. 희방사에서 오르는 연화봉은 철쭉능선이 수천평에 달하지만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철쭉을 감상하기에는 오히려 정상인 비로봉 부근이 좋다. 「살아 천년 죽어천년」을 간다는 주목숲과 어우러져 있는 소백산 철쭉은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다. 단양쪽으로는 온달산성과 온달동굴 등 유적지가 많아 답사여행지로도 제격이다.

비로봉일대는 천연기념물 제244호로 지정된 주목군락이

이들 불그스레한 철쭉꽃과 대조를 이뤄 더욱 장관이다. 소백산 철쭉은 5월말에 철쭉꽃 잔치가 시작되어 6월초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에 철쭉제가 열린다.

소백산은 겨울이면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전개되는 대설원의 부드러움과 장쾌함이 돋보이는 겨울산의 대명사이다.

비로봉 일대와 비로봉에서 제1 연화봉에 이르는 능선, 여름 초원이 눈이 내리면 대설원을 이룬다.

장쾌하고 드넓은 설원, 동화의 나라 설국 같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주목, 주목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 산마루의 설화가 감탄을 자아나게 한다.

■ 설화산행 포인트

비로봉 일대 장쾌한 설원, 정상인 비로봉 일대가 눈이 쌓이면 장쾌한 설원을 이룬다. 여름 초원이 설원으로 변하는 은백의 설국, 소백산에서만 볼 수 있는 대설원이다.

■ 환상적인 설화와 상고대

눈과 바람, 북동에서 남서 방면으로 뻗어 내린 능선이 늘 북서풍을 맞받기 때문에 특히 상고대가 아름답기로 이름 났다.

공기중의 수분이 갑자기 찬 공기를 만나 마른 나뭇가지에 얼어붙는 산호 같은 상고대가 제1 연화봉 능선과 비로봉 일대에 장관을 이룬다. 설화가 활짝 피면 벚꽃 터널을 방불케 한다.

천문대에서 제1 연화봉으로 치닫는 길은 설화터널, 제1 연

화봉에서 비로봉일대의 철쭉군락지가 설화와 상고대 지역이다. 비로대피소 옆 주목군락지, 비로대피소에서 천동리로 향하는 몇 백 미터 지점에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주목의 설경이 소백산의 설화를 더 빛낸다.

■ 산행 길잡이

소백산 눈 산행은 가족산행으로는 다소 무리이다. 산행경험이 있는 가족일 경우에만 가족산행을 한다. 초심자는 초심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코스를 택한다.

설화와 설원으로 대표되는 소백산은 바람이 세차다. 체감온도 영하 20도 이상에서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복장을 갖추고 여벌 옷을 준비한다. 바람은 등뒤나 옆으로 맞느냐 앞으로 맞느냐에 따

라 체감온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바람을 앞으로 맞으면 산행도 힘들고 체감온도도 더 떨어진다.

날씨가 추울 때는 비로봉에서 회방사나 죽령으로 하산하는 코스는 피한다. 북서풍이 주로 불기 때문에 이 코스는 바람을 앞으로 맞는 지점이 많다.

■ 눈 산행 코스

겨울 눈 산행의 하산 코스로는 천동리가 가장 좋다. 경사가 완만하여 무난하게 하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닐을 준비하여 군데군데 엉덩이 쓸매를 탈수 있는 코스이다. 비로 푸대나 다소 두터운 비닐 속에 옷가지를 넣고 타면 제격이다.

산행기점은 산행능력에 따라 정한다. 삼가리에서 비로사를 거쳐 비로봉으로 오르는 코스를 많이 이용한다. 죽령이나 천동리를 산행기점으로 하면 천문대-제1 연화봉 가는 능선의 설화터널을 즐길 수 있으나 시간이 더 소요된다. 회방사코스는 능선에 올라서기까지가 다소 가파르다.



눈 산행은 지도상의 소요시간 보다 3/1을 더 잡아야 한다. 체력이 된다면 죽령을 산행기점으로 하는 코스가 소백산 설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초심자코스

초심자들에게는 비로사와 어의곡코스가 많이 이용된다. 체력 소모가 많은 눈 산행, 초심자에게는 거리가 짧을수록 좋다. 5시간 이내가 소요되며 비교적 바람을 덜 타는 코스이다.

1. 비로사 코스(5시간) : 삼가리 → 비로사 → 비로봉 → 비로대피소 → 천동리
2. 어의곡코스(5시간) : 삼가리 → 비로사 → 비로봉 → 비로대피소 → 천동리
3. 제1 연화봉 능선을 타는 코스 : 천문대에서 제1 연화봉을 거



쳐 비로대피소에 이르는 구간도 설화터널과 상고대가 장관이다. 세찬 북서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설화가 아름답지만 2시간 이상 바람을 맞으며 능선을 타는 것이 다소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산행경험이 있고 겨울산행 장비를 완전히 갖추어야 한다. 초심자에게는 다소 무리.

- 4. 죽령코스 : 죽령 → 제2 연화봉 → 천문대 → 제1 연화봉 → 비로대피소 → 비로봉 → 천동리(희방사 산행기점보다 오르기가 다소 수월하다).
- 5. 희방사코스 : 희방폭포 → 희방사 → 천문대 → 제1 연화봉 → 비로대피소 → 비로봉 → 비로대피소 → 천동리(희방사에서 천문대로 올라서기까지 경사가 가파르고 힘이 든다).
- 6. 왕복산행코스 : 승용차를 이용할 때 원점회귀산행코스는 마땅치 않다. 천동리에서 비로봉을 올라 되내려 간다. 삼가리나 어의곡에서 왕복산행을 할 수도 있다.

■ 산행장비 및 준비물

체감온도 영하 10~30도를 견딜 수 있는 복장으로 준비해야 한다. 바람이 세차고 추우므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한복, 방한모, 장갑, 아이젠은 필수이다. 복장을 영하 10~30도를 견딜 수 있게 갖추고 여벌로 한 벌 더 갖고 간다.

※ 방한모 : 귀를 가릴 수 있는 등산모자나 털모자, 또는 목도리를 갖고 가서 귀와 얼굴을 감싼다.

※ 장갑 : 등산용 장갑이 없는 경우에는 털장갑으로 2개를 갖

고 가서 손이 시리면 더 끼거나 젖었을 때 갈아 낀다.

※ 등산화 등산양말 : 등산화는 방수용이 좋다. 등산양말을 신어 발이 시리지 않도록 한다.

※아이젠 : 눈이 녹아 얼지 않았을 때는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고도 올라 갈 수 있으나 처음부터 착용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착용한다.

※스패츠 : 스패츠를 착용하는 게 좋다.

※스틱(지팡이) : 초심자는 스틱을 갖고 가면 하산시 도움이 된다.

※ 중식 및 간식 : 눈 산행은 체력소모가 많다. 중식을 준비하여 비로대피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몇십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으나 등산객이 많을 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간식은 필수, 간식을 준비하여 산행중이나 하산시 비로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먹고, 식사는 천동리에서 하산한 후 할 수 있다.

교통안내

△ 열차 : 중앙선을 타고 단양역, 희방사역, 풍기역에에서 하차하여 버스를 이용한다.

△버스 : 단양이나 풍기로 가서 버스를 이용한다.



골프 스윙의 기본 ③

날카로운 헤드의 스윙이 요구되는 스퀘어 그립

최근들어 골프 애호가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골프가 대중들에게 인기있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골프기술의 향상과 골프의 참모습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스윙의 기본부터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롱 아이언, 미들 아이언, 숏 아이언, 어프로치 샷, 벙커 샷, 퍼팅, 트러블로부터의 탈출법, 나이스 샷, 등의 순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백스윙으로 손등은 몸의 전방을 향한다

스트롱 그립은 왼손을 겹친 상태로 클럽을 잡고 있다. 백스윙에서는 이 손등을 약간 위쪽으로 향한 채로 클럽을 쳐올린다. 톱스윙에서 왼손 손등을 약간 위쪽을 향한다.

백스윙의 톱에서는 왼손의 손등은 스트롱 그립보다 스퀘어 그립 쪽이 몸의 전방을 향한다. 스퀘어 그립의 경우 페이스를 볼에 향한 채로 백스윙을 취하면 손등은 몸의 전방이 아니라 아래를 향하고 만다.

왼손 손등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백스윙을 하면 톱에서 왼쪽 어깨가 내려올 뿐으로 몸이 돌지 않는다. 골프의 스윙은 원운동이다. 몸을 돌리고 클럽은 원호를 그려야만 하는 것이다.

스퀘어 그립의 경우 왼손 손등을 몸의 전방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왼팔을 약간 틀면서 백스윙을 해야만 한다.

왼쪽 팔꿈치를 위로 향하게 하고 그대로 백스윙을 하면 왼손 손등은 아래를 향하고 올라간다. 왼쪽 팔꿈치의 안쪽을 위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클럽을 쳐올려라. 클럽을 돌리는 데는 손만 아니라 팔도 돌려야만 한다.

스퀘어 그립으로 똑바로 볼을 치는 데는 클럽 헤드에 상당한 스피드가 요구된다.



왼쪽 사이트에 벽을 만드는 스퀘어 그립

스퀘어 그립에서도 다운스윙은 역시 왼쪽 사이트에서 리드한다. 다운스윙으로 들어갈 때의 몸의 동작은 스퀘어 그립에서나 스트롱 그립에서나 다를 바가 없다.

두 그립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임팩트이다. 스트롱 그립의 경우 몸의 왼쪽 사이트로 클럽을 쳐내려오면 그대로 마지막까지 왼쪽 허리를 회전시킨다.

그러나 스퀘어 그립에서 그대로 허리를 돌려서 스윙하면 페이스가 벌어져서 맞기 때문에 볼은 오른쪽으로 튀어나간다. 이것이 푸쉬 아웃(밀어내기)라든가 슬라이스의 원인이다.

스퀘어 그립의 경우 왼쪽 허리를 그대로 회전시키지 않고 임팩트의 직전에 허리가 돌아가는 것을 참아내야만 한다. 이른바 몸의 왼쪽 사이트에 벽을 만드는 것이다.

허리의 회전을 늦추고 팔을 휘둘러서 클럽페이스를 스퀘어로 되돌려야만 하는 것이다.



스퀘어 그립의 경우 왼손 손등을 몸의 전방을 향해서 올린다. 왼손 손등을 아래로 향하면 페이스가 오무라지면서 올라간다. 왼팔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올린다.

몸의 정면에서 헤드를 되돌리는 스퀘어 그립

스트롱 그립의 경우는 손이 약간 선행한 형태로 임팩트를 맞는다. 그런데 스퀘어 그립의 경우 몸의 정면에서 손을 들어 볼을 잡아야 한다.

스퀘어 그립이 볼을 잡는 타점은 왼손 손등의 연장선이다. 다운스윙은 왼쪽 사이트에서 리드하는데 볼을 쳐내는 순간에는 왼쪽 사이트를 일순간 멈추고 팔을 휘둘러서 왼손을 스퀘어로 되돌려야 한다.

스퀘어 그립에서 볼을 정확히 잡을 수 있게 되면 골프의 재미는 배가한다. 후크와 슬라이스도 가려서 칠 수 있게 되고 골프에 폭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반 골퍼는 먼저 스트롱 그립부터 익히고 나서 헤드를 스퀘어로 되돌릴 수 있게 되면 서서히 그립을 스퀘어로 접근시켜 가는 것이 좋다.



스퀘어 그립에서는 임팩트 직전에 왼쪽 허리의 회전을 늦추고 클럽을 든다. 왼쪽 사이트에 "벽(壁)"을 만들어야 한다.

골프의 과학 미니 지식

골프 스윙의 기본

스윙 파워와 헤드의 운동 에너지

골프 볼은 힘으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 때의 클럽헤드의 운동량의 크기에 의해서 날아간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다.

[헤드의 질량] × [헤드 스피드]

이것이 볼을 날리는 운동량의 정의이다. 헤드의 질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골프의 원동력은 큰 헤드 스피드를 끌어내는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스윙 파워 그 자체가 클 것, 다음으로 이 파워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헤드의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운동에 의해서 발휘되는 파워는 그 운동을 지탱하는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스윙파워는 스윙을 하는 플레이어의 근육량, 나아가서는 총체중과 정비례 한다라는 결론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체중이 가벼우니까 볼이 멀리 날아갈 수 없다고 단념하는 것은 속단이다.

인체의 근육 중에서 대량 60% 정도는 하반신(다리와 허리)에 있으며 양팔을 포함한 상반신에는 나머지 40%가 붙어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에서 최대의 스윙 파워를 끌어내려면 하반신의 근육을 풀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미 짐작할 것이다. 다시말해 하반신의 최대의 활용이 스윙 파워를 증진시키는 요체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스윙 파워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클럽 헤드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임팩트의 순간에는 헤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샤프트와 그립, 몸의 각 부분도 스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다시말해 이들 각 부분에도 에너지가 분배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헤드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어느만큼 높일 수 있는냐 하는 점이다. 다시말해 이것이 바로 스윙 파워를 헤드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효율이라는 말이 된다. 프로 골퍼처럼 거의 완벽한 스윙에서는 헤드의 운동 에너지는 전체의 50%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추어의 스윙에서는 이것이 30%에서 40%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

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이른바 레이트 히팅이다. 이것은 몸의 관절을 교묘히 사용하여 몸의 각 부분에 시간차 운동을 일으켜서 헤드 스피드를 높이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우선 가장 무거운 하반신의 회전을 가져가고 일순간 늦게 상반신의 회전을 스타트시킨다. 이렇게 하면 회전의 운동량이 자연 하반신에서 상반신으로 이동하여 상반신의 회전이 증폭되게 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차 운동이라는 것은 다리 · 허리 · 어깨 · 그립 · 헤드의 차례로 각부가 각각 늦게 시동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레이트 히팅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다운스윙의 시간은 0.2초라는 순간적인 빠르기이다. 이 속에서 시간차를 두고 운동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힘든 기술이다.

이 시간차 운동의 타이밍이야말로 골프 스윙의 최고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